

## 능력에서 연대로\*

### -〈오징어 게임〉을 기독교윤리적으로 바라보기

최경석 (남서울대학교, 부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오징어 게임〉 속으로

1. 줄거리
2. 〈오징어 게임〉에서 연대성 찾기

#### III. 능력을 공정으로 인정하는 입장에 대한 철학적 비판

1. 의무론적 윤리의 입장
2. 목적론적 윤리의 입장

#### IV. 공적에서 칭의로-능력을 넘어서 연대로

1. 칭의를 통한 연대
2. 노동을 통한 연대

####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2.53.04>

\* 이 논문은 2021년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2022년 4월 30일 서울신대학교에서 열린 한국기독교윤리학회 학술대회에서 “능력정의에서 연대정의로-오징어 게임을 기독교윤리적으로 바라보기”란 제목의 발표문을 대폭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

• ABSTRACT •

---

Beyond Meritocracy to Solidarity:  
Viewing the “Squid Game” from a Christian Ethics Perspective

Associate Prof., Choi, Kyung Suk (Namseoul University)

“Squid Game” received worldwide attention. Various interpretations exist as to the cause and content of this immense popularity. In this context, it also makes sense to keep the theological, especially the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It is meaningful to examine the reason for the international attention from the perspective of fairness, and to identify the norm of fairness in Korean society. In this sense, the content of the “Squid Game” is described, and it becomes clear that meritocracy can not replace fairness from a philosophical perspective. In the theological sense, the norm of solidarity is emphasized by the arrangement of the concept of justification and labor. In a philosophical and theological dimension, more value is placed on solidarity than meritocracy. Labor of the biblical statement empowers solidarity. According to justification, the righteousness of humans is not achieved by his merit. Therefore, people should have a deep interest in solidarity. It has ethical significance when the ability that God has given to humans contributes to the common good and when it makes the lives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more lively.

**Key words:** “Squid Game”, Meritocracy, Solidarity, Justification, Labor

---

## I. 들어가는 말

지난 2021년은 한국 대중문화가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은 한해였다. 그중에서 ‘넷플릭스(Netflix)’를 기반으로 한, 황동혁 감독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그 중심에 서 있다. 2021년 9월 17일에 방영이 시작되었고 2주 후인, 2021년 10월 2일, 넷플릭스가 제공되는 모든 국가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죽음을 담보로 최종 생존자가 상금 456억 원을 가져가는 게임에 456명이 참가하는 내용이다.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의 자발성, 각 게임이 끝난 후 내려지는 결정(죽음)의 수용성, 그리고 최종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성을 고려할 때, <오징어 게임>에서 진행되는 모든 게임은 공정하다.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보상이기에 공정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게임이 아무리 공정할지라도, 현실 사회에서 <오징어 게임>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이를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오징어 게임>이 전 지구적으로 관심을 받다 보니,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 열풍의 원인들과 내용에 대한 해석들이 다양하다. <오징어 게임>의 해석학이라 말할 수 있다. 독자적 해석이 요구되는 현대 해석학에서 신학적인, 특히 기독교윤리적 해석도 필요하다. 또한 최근 지구적 차원에서 “공정”이란 규범은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전 지구적으로 자국 내의 공정하지 못함을 지적하며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 능력에 따른 분배를 공정의 기치로 삼는 보수적 또는 우파적 이념들과 행동들이 확산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국경봉쇄, 거리두기, 백신과 코로나 치료제의 분배, 백신패스 등과 같은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정성을 따지기도 한다. 한국사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 2021년 한국사회는 대선을 통한 정치적 이슈들로 가득 찼다. 보수와 우파적 성향의 야당의 후보는 ‘공정’을 앞세우며 대선 경쟁에 뛰어들었고, 결국 당선되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공정은 자신에게 유리한 쪽에서 해석된 소위 ‘선택적

공정'의 모습으로 보여진다.<sup>1)</sup>

한국사회뿐만 아니라 지구적으로 청년들에게 있어서 키워드는 능력에 따른 공정으로 봐도 무방하다. 특히 한국의 경우, 취업의 높은 문턱에서 소위 “이대남(20대 대학생 남성)”은 병역의무의 관점에서 여성들과 비교해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기에 개인이 가진 능력에 잇대어 봤을 때, 한국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경향이 이대남들에게서 상당히 높다.<sup>2)</sup> 이 글은 능력위주가 말하는 공정을 넘어 연대하는 사회의 필요성을 고민한다. 이런 의미에서 제2장에서 <오징어 게임>의 내용이 기술될 것이다. 제3장은 철학적 측면, 특히 의무론적 윤리와 목적론적 윤리에 입각해서 능력을 공정으로 인정하는 입장이 비판을 받을 것이다. 제4장에서 신학적 측면에서 칭의론과 노동의 개념의 정리를 통해서 연대의 규범이 강조될 것이다.

- 
- 1)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 힘 대통령 후보자이며 현 대통령 윤석열은 자신의 부인 김건희의 허위 경력과 관련해서 선택적 공정을 보여줬다. 지난 2008년 신정아의 허위 경력에 대해서 당시 검찰로서 구형한 것과, 2019년 조민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에 대한 검찰총장으로서 행동이 그 예다. 어찌 보면 능력정의를 최대한 활용한 대통령 당선자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큰 능력은 소위 기소하지 않음에 있다. 검찰 자신의 이해관계와 상충할 경우,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사건을 무마시킬 수 있다. 아울러 지난 대선과정에서 언론과 각종 포털에서의 기사의 소비구조도 국민의 힘에 훨씬 유리하게 흘렀다. 실제 종편4사는 대통령 후보 부인에 대한 보도에서 ‘김혜경 의혹’을 ‘김건희 의혹’보다 10배 이상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뉴스공장, 2022년 2월 21일, <https://www.youtube.com/watch?v=z1hn7Ekqe-o>을 참조하라. 2022년 4월 24일 접속.
  - 2) 송용섭은 기독교윤리적 시각에서 20대 남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일베)’의 사용자들이 생각하는 정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 있다. “한국 발전에 기여한 집단들은 ‘남성, 산업화 세력, 영남’이고 이들은 한국 사회에 기여한 만큼 보상받아 주류가 되어 ‘사회적 정의가 구현’되었다. 그런데 ‘여성, 진보, 호남’은 이기적으로 권리만을 앞세워, ‘기여한 것보다 더 큰 보상을 요구하므로 정의구현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일베의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송용섭, “공감적 정의를 향하여 일베 현상을 통한 롤즈의 정의론의 비판적 성찰과 대안으로서의 공감적 정의”, 『한국기독교신학논총』 99(2016), 92.

## II. <오징어 게임> 속으로

지난해, 전 지구적으로 <오징어 게임>의 열풍이 일어났다. 이런 열풍의 이유들은 여러 가지며 일각에서는 여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난무하고 있다. 기독교윤리적 시각에서 <오징어 게임>을 바라본다면, 전 지구적으로 공정하지 못한 지구의 현실을 <오징어 게임>이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극 중에서 “오징어 게임”을 설계한 오일남의(오영수 분) 대사, “밖에 나오니까, ... 여기가 더 지옥이야.”처럼 지옥과 같은 냉혹한 현실에서 공정성은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다. <오징어 게임>을 단순히 문화적 소비의 한 형태로 평가하고 작품에 대한 논평으로 머물기보다는 작품에 담겨 있는 시사적 고발성을 학문의 영역으로 가져와 학술적 가치로 인정하는 것도 그 의미가 있다.<sup>3)</sup> 이런 의미에서 “오징어게임”을 기독교윤리 특히, 연대의 관점에서 대략적 줄거리와 더불어 읽어본다.

### 1. 줄거리

456명의 참가자들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456억 원의 상금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총 6개의 게임이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456명, 각각의 서사는 다르지만 공통점은 경제적 절망감이다. “빚에 쫓기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서바이벌 게임에 뛰어들다. 거액의 상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하지만 모두 승자가 될 순 없는 법. 탈락하는 이들은 치명적인 결과를 각오해야 한다.”<sup>4)</sup> 이는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에서의 <오징

3) <오징어 게임>을 주제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의 논문들을 살펴본다면, 대부분 미디어나 문화영역에서 콘텐츠 활용에 대한 것들이다. 문학적으로 <오징어 게임>과 피테의 파우스트를 비교하면서 학문적인 영역에서 연구한 논문으로는 이균호, “「오징어 게임」과 피테의 『파우스트』-그 내용적 연관성에 대한 소고”, 『피테연구』 34(2021), 5-28. 정도다.

어 게임)에 대한 소개다.

〈오징어 게임〉은 총9부작으로 구성되었다. 대략의 줄거리를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홈페이지에 잇대어 구성해 본다.<sup>4)</sup> 제1부는 “무궁화 꽃이 피던 날”로 빗더미의 중년 남자 성기훈은(이정재 분) 일확천금을 노리고 의문의 게임에 참여한다. 첫 번째 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많은 참여자들이 첫 번째 게임에서 패배하여 죽음을 맞이한다.

제2부, “지옥”은 첫 번째 게임에서 발생한 참혹함을 경험한 참가자들이 게임을 지속할지에 대한 투표를 단행하며 바깥세상으로 다시 나갔지만, 지옥같은 현실로 인해 다시 게임에 참가하는 내용이다. 주인공들이 왜 다시 게임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서사적 배경이 나온다. 하나같이 경제적 빈곤이다.

3부는 “우산을 쓴 남자”로, 각자마다 운수와 저주가 따르는 두 번째 게임, “설탕뽑기” 게임이 진행된다. 주인공 기훈은 우산 모양을 고른다. 우산 쓴 남자, 그는 성기훈인 셈이다. 기훈은 재치로 죽음을 모면한다. 조상우는(박해수 분) 게임의 종류를 미리 예측해서 매우 쉬운 삼각형을 고른다.

제4부, “졸려도 편먹기”에서 밤이 되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두려움이 참가자들 속에 엄습한다. 참가자들은 저마다 자신을 지켜줄 동역자들을 찾고 뭉친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는 살인이 나뉘 용인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 게임, 단체 “줄다리기”를 위해서 게임에 유리한 참가자들로 팀이 구성되어야 한다. 대부분 노인, 외국인, 여성들로 구성된 기훈과 상우의 팀은 일남의 제안을 수용하고 상우의 재치로 줄다리기에서 승리해서 살아남는다.

제5부는 “평등한 세상”이란 제목으로, 또 다시 찾아온 밤에 일어날 수

4) <https://www.netflix.com/kr/title/81040344>, 2022년 3월 19일 접속.

5) 위의 사이트.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불침번을 서기로 한다. 빛이 없는 밤에 참가자들은 상대방을 살인한다.

제6부, “간부”는 2인 1조로 진행되는 네 번째 게임인 “구슬” 놀이에 대한 것이다. 기훈은 일남과 딱지와 구슬을 공유하는 “간부”를 맺는다. 생사의 기로에서 기훈은 일남을 속여 살아남는다. 상우는 살고자 하는 본능에 굴복하여 알리틀(트리파티 아누팜 분) 유린한다. 강세벽은(정호연 분) 아무에게도 하지 않은 자신의 이야기를 지영이에게(이유미 분) 털어놓는다.

제7부는 “VIPS”로 게임의 후원자들이 직접 현장에 와서 참관하는 가운데 참가자들, 아니 살아남은 자들은 다섯 번째 게임 “징검다리”를 건너야 한다. 정해진 시간에 깨지지 않은 강화유리 징검다리를 건너야 한다.

제8부, “프론트맨”은 짧은 분량으로 다섯 번째 게임의 승리자인 기훈, 상우, 그리고 새벽이 만찬을 하고 마지막 게임을 기다린다. 상우는 새벽을 살해한다.

제9부는 “운수 좋은 날”로, 마지막 게임인 “오징어 게임”에서 기훈과 상우가 죽음을 걸고 게임을 진행한다. 상우는 스스로 자살하며 기훈이 최종 승리자가 된다. 456억 원도 받는다. 그러나 그가 돌아간 현실은 여전히 지옥인 듯 하다. 어머니는 죽었고,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도 모두 죽었다. 그 죽음의 대가가 456억 원이다. 설계자였던 “간부”, 일남의 정체가 밝혀지고, 기훈은 456억 원의 일부를 새벽의 남동생과 상우의 어머니에게 준다.

## 2. <오징어 게임>에서 연대성 찾기

절망과 좌절을 맞본 참가자들은 게임에서 승리할 경우, 거기에 상응한 몫인 상금을 받는 것이 공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오징어 게임”에 참여한다. 이 게임에 참여한 참가자들 대부분은 경제적 절망감에 빠져 있다.

게임은 어떻게 보면, 가장 공정하다.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은 규칙을 알고 있으며, 그 규칙에 합의하여 참여하기에, 게임의 결과에 복종한다. 공정한 게임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게임의 과정이 얼마나 공정한지를 따져야 한다. 스포츠 경기도 마찬가지다. 공정한 경기의 과정을 담당하는 심판관이 존재하는 이유다.

“오징어 게임” 속에 뛰어난 참가자들은 자신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임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그들은 참가 전에 딱지치기의 경험을 이미 했다. 참가자들 저마다 계약서를 읽고 거기에 서명을 한다. 계약이 성립된 셈이다. 다만, 어떤 게임이 어떤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질지 그들은 모른다. 이런 의미에서 참가자들은 어떤 게임이 펼쳐질지 모르는 무지의 장막 속에 있는 셈이기에 출발점은 공정하다고 볼 수 있다.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무지의 장막 속에서 출발하기에 공정하다고 볼 수 있으나, 승패의 결과가 목숨이라는 설정에서 공정이란 개념은 유명무실해진다. <오징어 게임>에서 펼쳐지는 게임은 개인의 능력이나 팀의 능력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된다. 그리고 패배는 곧 생명과 교환된다. 하지만 머리가 좋아서 또는 체력이 좋아서 또는 운이 좋아서 승리한 최종 승자, 기훈<sup>6)</sup>에게는 그런 능력은 무의미하다. 그는 왜 456억 원에서 단돈 10,000원만 인출했나? 그 많은 돈이 나머지 사람들의 핏값이기에 인출하지 않았나?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마지막 부분에서 그 돈의 일부를 새벽<sup>7)</sup>

---

6) 성기훈(이정제 분)은 자동차 공장 노조원으로 활동하며 공장의 폐업을 막기 위한 투쟁의 한복판에 있었다. 이로 인해 실직을 당하고 사채와 도박을 전전하다 이혼하고 무기력한 삶을 유지한다. 어머니 돈을 훔쳐 경마장에 가는 철없는 기훈은 새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으로 가는 딸을 위해서 그리고 당뇨로 인해서 고생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7) 강새벽(정호연 분)은 북한을 탈출한 여성으로 보육원에 남동생이 있다. 남동생을 보육원에서 자기 품으로, 복에 있는 부모님을 남한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목표다. 소위 탈북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해 돈을 잃게 되어 소매치기까지 하며 삶을 유지한다. 가족이 함께 모일 희망과 제주도로 여행할 목표로 게임에 참가한다.

의 남동생과 상우<sup>8)</sup>의 어머니에게 나누는 장면은 의미가 있다. 능력이 아닌 연대라는 점에서 말이다. 능력이, 그것이 머리든, 힘이든, 운이든 간에 승패를 좌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 중요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연대의 역설적 측면에서 각 게임을 읽어보기로 한다.

“오징어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마주칠 게임들은 단순하다. 어릴 적, 그 유래가 어딘지 모르고, 동네에 따라서 저마다 다른 규칙들을 가지고 있으며, 동무들과 함께 놀았던 놀이들로 구성된 게임들이다. 첫 번째 게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 게임의 규칙은 참여자들 각자가 이미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게임에서 진 패배자들의 최후가 목숨이라는 사실을 참여자들은 몰랐다. 그 결과를 게임의 설계자와 운용자들은 알았으나,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몰랐다. 처음부터 살상이 난무하는 과정에서 천진난만한 웃음과 함께 일남<sup>9)</sup>의 행동을 지켜본 사람들은 어릴 적 놀이를 상기하면서 게임에 참여한다. 이 게임은 철저히 개인의 능력에 의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 사람의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줌으로써 연대의 가능성이 보이게 된다. 또한 기훈이 넘어지려 할 때, 뒤에서 힘으로 잡아주면서 기훈의 죽음을 막아준 알리<sup>10)</sup>의 역할에서 연대의 모습이 해석될 수 있다.

두 번째 게임은 소위 “설탕 뽑기”다. 첫 번째 게임이 끝난 후, 게임의

---

8) 조상우(박해수 분)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증권회사에 취직해 승승장구했다. 회사에 60억에 해당하는 배임행위를 저질러 수배당하며 자살까지 시도했다. 성기훈의 동네 후배면서 동네의 자랑거리였다. 미래도 희망도 없는 그는 게임에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투자할 수 있다.

9) 오일남(오영수 분)은 나머지 455명과는 다르다. 게임의 설계자이자, 남은 생이 별로 없는 참가자다.

10) 알리(트리파티 어누팜 분)는 코리안드림을 위해서 한국으로 이주한 파키스탄 노동자로서 꿈은커녕 악덕 사용자에게 의해 몸과 마음까지 만신창이가 되어 버렸다. 산업재해를 입었음에도 병원비는커녕 고향으로 돌아갈 여비마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게임에 참여한다.

지속 여부를 두고 투표가 진행되고, 그 결과로 게임이 중단된다. 하지만 다시금 자발적 참여로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에게서 연대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각자의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구성된다. 두 번째 게임이 어떻게 펼쳐질지 예상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연대를 방해하며 자발적 공동체의 연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기훈의 능력과 재치로 인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두 번째 게임에서 몇 사람들이 살아남기도 한다.<sup>11)</sup>

세 번째 게임은 단체전으로 “줄다리기”다. 단체전이기에 힘 있는 남자들이 많으면 유리한 게임임이 예상되었지만, 기훈의 팀은 여자들과 노인이 가장 많은 팀으로 구성된다. 줄다리기는 연대의 게임이다. 일남은 어릴 적, 줄 곳 했던 줄다리기 방법을 설명하는 능력을 발휘하며 10명의 팀원은 그 방법으로 연대한다. 위기의 순간 상우의 능력으로 발휘된 방법에 10명의 팀원이 연대하며 결국 승리한다. 한 사람의 능력을 열 사람이 연대했기에 가능한 승리였다.

세 번째 게임이 끝난 후, 자율적으로 구성된 팀은 밤에 일어날 끔찍함을 미리 예상하고 서로의 팀을 지키려고 연대한다. 연대한 팀원들이 어둠 속에서 상대 팀원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일남은 높은 곳에 올라가 “이러다 죽어”를 외친다. 그 외침에 어둠 속 살육은 끝이 난다. 네 번째 게임은 2인 1조 게임이다. 2인일 경우, 연대가 가장 강할 것으로 판단한 참가자들에게 역설적으로 연대가 아닌 상대방을 이겨야만 하는 게임이 펼쳐진다. 바로 “구슬”놀이이다. 기훈은 그 누구도 함께하기 싫어하는 나이 많은 노인, 일남과 한 팀이 된다. 결국 기훈의 거짓말을 다 알고도 그 유명한 “간부”라는 이유로 일남은 기훈에게 자신의 구슬을 다 준다. “간부”는 구슬과

11) 주인공 기훈은 햇빛을 이용해 침으로 설탕뽑기를 녹임으로써 두 번째 게임을 통과한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동일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 아울러 바늘과 라이터 불도 공유하는 장면도 나온다.

딱지를 서로 공유하는 사이로 연대적 성향이 강한 드라마 속 언어다. 어릴적 언어인 “간부”가 소환되어 연대의 중요성이 상기될 수 있다.

다섯 번째 게임은 “징검다리” 건너기다. 유리판으로 되어 있는 징검다리를 건너야 하는 게임으로 순서는 살아남은 참가자들이 스스로 결정한다. 스스로의 결정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 셈이다. 1번부터 16번까지 숫자들 중에서 사람들은 중간 숫자들을 선택하려고 한다. 이도 저도 결정을 못한 기훈은 결국 맨 마지막으로 마지막 숫자를 고른다. 징검다리를 건너는 순서를 결정한 것이다. 정해진 시간에 징검다리를 건너 모든 사람들이 승리를 얻게 된다. 발 앞에 펼쳐진 두 개의 유리판 징검다리 중에 한 쪽은 강화유리, 한 쪽은 일반유리로 되어 있어 강화유리를 밟아야 살아남아서 계속 전진할 수 있다. 이 게임에서는 연대가 필요 없어 보이고 그저 운이 작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살아남은 참가자들 중 유리 전문가가 있다. 유리 전문가가 앞장 서서 그 특성을 미리 설명했다면, 모든 참가자들이 살아남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능력은 자신과 뒷사람만을 위해서 사용된다. 그마저도 시간이 부족해 상우가 유리 전문가를 밀쳐 떨어뜨리고 상우, 새벽, 그리고 기훈만 살아남게 된다.

마지막 여섯 번째 게임에 앞서, 살아남은 자들에게 푸짐한 저녁이 제공된다. 새벽은 유리 파편이 옆구리에 박혀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 저녁 식사를 위해 제공된 칼과 포크는 무기가 될 수 있다. 세 명은 서로를 감시하면서 밥을 지새운다. 기훈은 옆구리에 박힌 유리 파편으로 인해 약자가 된 새벽을 보호한다. 하지만, 상우는 그런 새벽을 제거한다. 마지막 게임은 “오징어 게임”, 힘과 잔피라는 능력이 발휘되어야 이길 수 있는 게임이다. 피가 혼건한 사투 끝에 바닥에 누운 상우를 기훈이 칼로 찌르려고 하지만, 기훈은 상우의 몸이 아닌 바닥에 칼을 꼽는다. 차마 어릴 적 동무이자, 동네 동생인 상우를 죽일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까? 상우는 그 칼을

바닥에서 빼내어 자기의 몸에 찌르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오징어 게임”의 최종 승자, 최후까지 살아남은 자는 456번 성기훈이다. 그는 456억 원을 1년 동안 찾지 않는다. 그는 은행의 VIP지만, 은행장에게 오히려 10,000원을 빌린다. 그는 “깡부”, 일남의 부름에 일남을 찾아가고 일남이 설계자임을 알게 된다. 일남은 참관하는 것보다 참여하는 것이 더 재미있을 듯 해서 1번으로 참여했다고 고백한다. 어차피 얼마 남지 않은 삶이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일남은 죽어갈 때까지 게임을 진행한다. 죽어가는 일남은 기훈에게 내기를 건넨다. 밖에서 눈을 맞고 있는 노인을 12시 이전에 누군가 구해줄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내기다. 일남은 냉소적으로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 하면서 죽게 된다. 하지만, 12시 이전에 누군가 그 노인을 도와준다. 눈이 오는 세상은 여전히 추운 듯 하나, 도움의 손길이 있는 곳은 따스하다. 스스로의 능력이 없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밖에 쓰러진 노인이었지만, 누군가의 도움으로, 누군가가 그와 연대함으로써 살게 된다.

### III. 능력을 공정으로 인정하는 입장에 대한 철학적 비판

앞에서 능력이 아닌, 연대를 강조하는 시각으로 <오징어 게임>을 읽었다. 능력을 통한 정의 또는 공정에 대해서 철학적 입장이 언급되는 것은 그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반성을 위해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의무론적 윤리와 목적론적 윤리의 두 가지의 큰 틀에서 능력을 공정으로 인정하는 사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비판들이 롤즈(J. Rawls)의 입장을 중심으로 의무론적 윤리에서, 공동체주의의 입장을 중심으로 목적론적 윤리에서 언급될 필요가 있다.

## 1. 의무론적 윤리의 입장

사회철학자 센(A. Sen)에 따르면 현대 철학에서 사회정의론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sup>12)</sup> 하나는 사회계약 전통에서 완벽한 정의를 찾는 노력으로 홉스(T. Hobbes), 루소(J.-J. Rousseau), 칸트(I. Kant) 그리고 롤즈로 이어진다. 다른 하나는 이미 존재하는 정의에서 비교적 나은 정의를 찾는 노력으로 스미스(A. Smith), 벤담(J. Bentham), 맑스(K. Marx), 밀(J. S. Mill)을 이어 센까지 이르고 있다.

공정에 대한 원리를 제시한 하트(H. L. A. Hart)에 따르면, 한 사회의 개인들은 규칙을 만들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여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이런 협력체제의 규칙들에서 모종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도 그 규칙들을 따르도록 요구되며 그들의 자유는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다. 사회구조를 만드는 데 협력한 사람들과 혜택을 받은 사람들 상호의 자유가 제한됨으로써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는 실현된다.<sup>13)</sup>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와 사회계약설을 바탕으로 정의에 대해 논의한 대표적인 사람은 롤즈다.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이해는 수 많은 글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sup>14)</sup> 롤즈는 하트의 공정원리를 수용한다. 롤즈의 정

12) Sen, Amartya, *The Idea of Justice*, (London: Penguin Books, 2009), 5-8.

13) 김동일, “공정원리의 이론과 도덕적 기초”, 『정치사상연구』, 18-1(2012). 80-81.

14) 한국의 신학자들이 롤즈에 관심을 가지며 그의 정의론을 언급한 글들은 다음과 같다. 이상원, “존 롤즈의 정의론: 공정성으로서의 정의”, 신원하 편, 『기독교 윤리와 사회정의』 (서울: 한들출판사, 2000), 21-67, 유지황, “토마스 아퀴나스의 정치사상의 분석적 이해”, 『철학사상』 25(2007), 31-66, 이혁배, “존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신학적 평가”, 『신학과 실천』 28(2011), 857-877, 정기철, “리퍼의 정의론: 롤스와의 대화”, 『한국개혁신학』, 36(2012), 304-335, 전희원, “존 롤즈의 사회정의론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평가”, 『한국여성신학』, 76(2012), 75-101, 광호철, “Making John Rawls’ Political and Implications for Religion”, 『신학논단』 74(2013), 311-352, 고재길, “공정사회와 기독교 정의론에 대한 연구”, 『선교와 신학』 35(2015), 161-199, 그리고 송용섭, “공감적 정의를 향하여: 일베 현상을 통한 롤즈의 정의론의 비판적 성찰과 대안으로서의 공감적 정의”, 91-119, 이 글들의 요약을 위해서 송용섭, 위의 글, 94-96를 참조하라.

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다.<sup>15)</sup> 공리가 옳고 그름의 판단기준인 공리주의적 정의관에 대한 대안으로 계약론적 전통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사회를 위한 정의관을 확립한 도덕적 기초를 세우는 것이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목표다.<sup>16)</sup> 정의로운 사회는 공정한 협력체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sup>17)</sup> 원초적 입장의 두 가지 조건인 무지의 장막과 상호 무관심 속에서 자신이 속한 정파의 이익을 위해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며 계약을 맺어 협력체제가 이루어진다. 이곳에 참여한 정파들은 하나의 공동결의를 만들어 기본권리와 의무를 할당하고 사회적 이해관계의 분배를 정할 원칙을 채택한다. 이런 의미에서 롤즈는 하트의 공정이론을 수용한다고 본다.<sup>18)</sup>

원초적 무지의 장막 속에서 각 정파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공리주의적 원칙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정파가 소수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각 정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유사한 자유를 누리며, 기본적 자유를 누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할 것이다(정의의 제1원칙). 이 원칙 속에서 사람들은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그들의 기본권을 포기하고 희생을 감내하며 자유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원초적 무지의 장막 속에서 각 정파들이 상호 무관심 속에서 합의하여 정의를 도출했을 때, 생기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문제들이 존재할 것이다.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정파들이 생길 경우, 그들에게 최소한의 수혜가 돌아가야 한다. 그들에게 돌아가는 수혜가 그들에게는 최대의 이익이 되는, 즉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되는 이른바 ‘차등의 원칙’이 성립되어야 한다(정의의 제2원칙). 각 정파의 사람들은, 아무리 최소 수혜자들일지라도,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고 투명

15) Rawls, John, *A Theory of Justice*, 황경식 옮김, 『정의론』 (서울: 이학사, 2003), 35-96.

16) 위의 책, 16.

17) 위의 책.

18) 위의 책, 17.

한 직위와 직책을 부여받아야 한다.<sup>19)</sup>

롤즈는 능력주의에 대해서 경계한다. 차등의 원칙에 따르면, 애당초 출발점이 유리한 곳의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의 능력이기에, 능력을 개발하되, 능력으로 얻게 된 이익은 공동체 전체에게 공유되어야 한다. 이르기 위해서는 사회의 기본 구조가 변경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타고난 능력은 공동의 자산이기에, 이익이 생기면 함께 나누는 데 합의한 것이기 때문이다.<sup>20)</sup> 타고난 능력에 비해 같고 닦은 노력으로 불리우는 능력도 “가정과 사회적 영향”으로 보고 있다.<sup>21)</sup> 노력하는 의지마저 타고난 능력이기 때문이다. 즉 타고난 재능, 가정과 사회적 환경, 그리고 그로 인한 노력이란 것은 도덕적 우연으로서 하나의 임의적인 것이기에 배제되어야 한다. 롤즈에 따르면 그 어떤 능력이라도 최소 수혜자들이 받을 이익에 대해서 이바지해야 한다. 롤즈에게 있어 정의는 사회계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회계약을 통해서 세워진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의무와 권리가 규정되고, 그 규정에 맞는 것이 선이다. 윤리적으로 선한 능력은 차등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 수혜자들에게 최대 이익이 될 때만 가능하다.

## 2. 목적론적 윤리의 입장

정의를 목적론으로 이해하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몫으로 말한다.<sup>22)</sup> 정의는 목적과 그 목적에 도달할 경우 받아야 할 몫인 영광과 밀접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는 좋은 삶을 사는 것이다. 좋은 삶을 위해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미덕과 공동선을

19) 위의 책, 105.

20) 위의 책, 152.

21) 이와 같은 해석으로 Sandel, Michael J.,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이창신 역, 『정의란 무엇인가?』 (과주: 김영사, 2010), 221.

22) 위의 책, 263.

배우고 이것들은 좋은 습관에서 비롯된다.

공동체의 목적인 좋은 삶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에 관심을 가진 공동체주의자들도 정의와 도덕의 관계를 주목한다. 매킨타이어(A. MacIntyre)는 개인을 “이야기하는 존재”<sup>23)</sup>로 정의한다. 즉 인간은 서사의 존재다. 공동체 속에서 구성된 개개인도 그 공동체가 공유하는 이야기의 일부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유지시키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다. 이런 유지와 전달력을 가진 이야기의 특별한 목적이 바로 미덕이다. 미덕을 위해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서로 연대해야 하는 이른바 연대의무를 가지며 공동선을 추구한다.

샌델은 공동체주의에 입각해서 공동체가 미덕을 세우며 연대성을 확장시키는 데 관심을 가진다. 이를 위해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여해 공동체를 위한 공공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sup>24)</sup> 이렇게 되도록 정부는 시민들의 삶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sup>25)</sup> 연대가 아닌 개인의 능력 또는 가정의 능력에 따라서 공동체의 삶이 진행될 경우, 정부의 역할이 절실흐진다. 최근 샌델은 그의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The tyranny of merit)』에서 이런 사회를 지적하고, 능력주의를 비판한다. 우리나라의 번역은 “공정하다는 착각”이지만 원문을 직역하면, “능력주의의 폭정”이다. 그만큼 능력주의가 지배하는 사회는 폭정이라는 것이다.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미덕의 탈을 쓴 능력이다. 수학능력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은 개인이 가진 능력에도 비례하지만, 부모가 가진 재력과 비례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바 ‘엄마 찬스’와 ‘아빠 찬스’란 용어로 사용된다. 샌델은 이를 “능력주의의 폭정”이라 규정한다.<sup>26)</sup>

23) 위의 책, 310.

24) 위의 책, 369.

25) 위의 책, 370.

26) Sandel, Michael J., *The tyranny of merit*, 함규진 역, 『공정하다는 착각』, (서울: 미래엔,

능력을 넘어서 누구나 노동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샌델에게 있어 중요하다.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노동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노동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공동선으로 이해될 수 있는 연대성을 다시 찾아야 한다.<sup>27)</sup> 샌델에 따르면, 능력에 따른 자유로운 시장경제와 접목한 민주주의는 “소비주의적 민주주의”로서 도덕적 연대와는 전혀 무관해서 소비자의 복지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다.<sup>28)</sup> 그러나 민주주의는 “사회적 연대와 시민의식의 강화”<sup>29)</sup>에 기여해야 한다. “시민적 공동선”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능력에 따른 상이한 의견들 사이에서 타협하고 “다름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공동선을 기르는 방법”인 것이다.<sup>30)</sup>

#### IV. 공적에서 정의로: 능력을 넘어서 연대로

<오징어 게임>에서 경제적 빈곤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참혹한 게임으로 참가자들을 몰아넣는다. <오징어 게임>은 드라마지만,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에서 일어날 수 있기에 많은 시사점을 일으켰다. 현대의 산업구조에서 능력으로 표현될 수 있는 업적중심 또는 성과중심의 노동이 장려된다. 능력이라는 것이 인간부합적인지에 대한 질문은 윤리적, 특히 기독교 윤리적 틀에서 중요하다.<sup>31)</sup> 이런 의미에서, 능력과 업적으로 해석될 수

---

2020), 255.

27) 위의 책, 343.

28) 위의 책, 352.

29) 위의 책, 348.

30) 위의 책, 353.

31) 리히(A. Rich)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구조와 제도들이 인간부합적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을 던지며 이를 기독교윤리적 특히 기독교 경제윤리적인 입장에서 탁월하게 분석한다. 그러기에 인간부합적인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기독교윤리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Rich, Arthur, *Wirtschaftsethik Bd. 1*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84)를 참조하라.

있는 공적을 중요시했던 16세기 이전의 기독교 전통에 맞서 믿음으로 인해 의로움을 인정받는 칭의와 하나님으로부터의 전적인 은혜가 강조된 16세기 종교개혁 운동의 전통이 소환될 수 있다. 루터(M. Luther)는 공적이 아닌 칭의의 의미를 찾으려 하면서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린다. 철학적 입장에서 정의의 틀 속에서 능력주의에 대한 경계가 논의되었다면, 신학적 입장에서 칭의를 통해서, 특히 루터의 입장에서 연대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오징어 게임〉에서 승자 기훈은 철저히 개인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와 연대함으로써 승자가 된 것이다. 기훈의 승리는 환호가 아닌 씩씩함이다. 일자리를 잃어버려 또는 일을 할 수 없어,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기에, “오징어 게임”에 참가한 극 중 인물들을 대표하는 기훈의 승리는 오히려 능력보다는 같이 살아야 하지 않았나?라는 역설적 승리로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노동에 대한 성서적 그리고 신학적 개념이 주목될 수 있다. 노동할 능력보다는 노동을 통한 연대의 해석으로서 노동의 개념이 언급되어야 한다.

## 1. 칭의를 통한 연대

바울에 따르면,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의로움을 받는다.<sup>32)</sup> 칭의의 개념은 종교개혁 시대에서 주요한 주제로 여겨진다. 칭의는 원래 법적 용어로, 범죄자지만 제3자 또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법부에 의해서 죄가 없다고 인정될 때 사용된다. 신학적 입장에서, 인간은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서 범법자지만, 신법을 적용하는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인간에게 죄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은 죄인이며 의인

32) 로마서 1장 16절 이하.

인 모순성을 가지고 있어 죄인에 가까운 셈이다.<sup>33)</sup>

종교개혁 전통에서 루터는 교황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당시 기독교에서 강조한 업적주의를 강력히 거부한다. 특히 인간 노동에 대한 사고는 업적주의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에서 비롯된다. 즉 이신칭의(以信稱義)가 그 출발점이다. 루터는 인간의 행위 그 자체를 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으로만 인간은 의롭다고 간주된다. 그 결과로서 인간에게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부여된 것이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찾는 행위를 철저히 거부한 루터는 이런 자력구원으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 비로소 자유를 얻는다고 본다.<sup>34)</sup>

하지만 루터가 인간의 업적 자체를 완강히 거부하거나 부인한 것은 아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을 통해서 자유를 획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피조물로 고백하는 믿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는다. 이런 의미에서 자유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인간의 능력과 노력을 통해서 성취한 업적이 아니다.<sup>35)</sup>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에 의해 자유를 얻으며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인간은 타인과 사물을 섬기는 자유로 확장시켜야 한다. 즉 봉사의 실행인 것이다. 엄격한 의미에서 봉사는 능력에 따른 업적에 해당한다. 하지만, 루터에게서 봉사는 이기적인 측면을 넘어서 타인의, 기독교적 용어로 말

33) 이런 해석으로, Niebuhr, Reinhold., *Die Kinder des Lichts und die Kinder der Finsternis, Eine Rechtfertigung der Demokratie und eine Kritik ihrer herkömmlichen Verteilung*, (München: 1947), 8.

34) Luter, M. *Weimarer Ausgabe*7 (Weimar, 1872ff), 32. 이하의 *Weimarer Ausgabe*는 *WA*로 약칭한다. 루터의 1차 문헌에 대한 각주는 *WA*의 순서를 따른다. 각 *WA*에 대한 제목과 쪽수는 참고문헌에 기록한다. 이를 위해서 참고문헌을 참조하라.

35) 위의 글, 또한 Brakelmann, Günter, *Zur Arbeit geboren?, Beiträge zu einer christlichen Arbeitsethik* (Bochum: SWI, 1988), 34.

한다면, 이웃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업적이다. 타인을 향한 봉사는 이웃들과 연대를 통해 가능하다. 인간들의 자유는 이웃들과 연대하면서 공동체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봉사로 표출되어야 한다.<sup>36)</sup> 봉사는 인간의 노동을 통해서 가능하다.

기독교적 인간론은 죄인에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 앞에서만 의로운 인간이기에 서로 연대하여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칭의론에서 유출될 수 있다. 특히 루터가 말하는 이웃사랑은 칭의론에서 이해될 수 있고 칭의론의 현대적 의미인 연대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 칭의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를 통한 인간의 구원을 자양분으로 삼는다.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며 동시에 인간을 위한, 이웃을 위한 사랑으로 이해한다.<sup>37)</sup>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을 낮춰 인간을 섬기고 이웃을 섬긴 예수 그리스도가 걸었던 그 길을 따라서 이웃에게 관심을 보이고 이웃들과 연대해야 한다.

## 2. 노동을 통한 연대

능력에 따라서 노동의 대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노동 그 자체로 존엄하다는 샌델의 견해는 신학적 노동의 개념과 유사하다. 창조신학적 관점에서 성서는 노동을 하나님과 계약으로 증언한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을 경작하고 보호하라고 위임한다.<sup>38)</sup> 종교개혁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그 분의 자녀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공동체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부르심에 따라서 노동을 하게 된다. 이런 노동은 반드시 이웃을 위한 봉사로 이어져야 한다.<sup>39)</sup> 노동하기 위한 직업(Beruf)은

36) 위의 책, 35.

37) Luther, M., *WA* 2, 146.

38) Brakelmann, G., *Zur Arbeit geboren?*, 9.

하나님의 부르심(Berufung)이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노동을 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숙고해야 한다. 직업을 통한 노동은 자신의 능력이지만, 공동체의 삶에 이바지해야 하는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창세기 2장 15절은 인간이 왜 노동에 참여하는지에 대해서 증언한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참여한다. 노동에 대한 광의적 의미인 셈이다. 임금노동과 자신의 능력에 따라 협의적 의미의 노동의 개념이 현대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다. 능력에 따른 돈벌이 노동이 사람들의 삶의 종류와 질을 결정시켜 노동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발생하고 결국 이들은 사회로부터의 소외를 경험한다. 성서는 능력에 따른 협의적 노동의 의미를 경계하고 있다.<sup>40)</sup>

오히려 성서는 노동을 통한 연대성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창조신학적 입장에서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다. 첫 번째 창조기사에서 인간은 이미 조건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마지막에 창조된다. 두 번째 창조기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창세기 2: 18) 첫 번째 창조기사와 유사하게 돕는 배필은 더불어 사는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 피조세계다. 노동을 통해서만 살아야 하는 노동의 부정적 입장과 노동을 통해서 삶을 유지하는 긍정적 입장 속에서 공동체의 구성원은 서로 돕는 배필, 즉 연대하는 존재인 것이다. 노동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를 성서는 증언하고 있다. 산업화 이전, 가정 중심의 공동체에서 산업화 이후, 노동사회의 공동체는 돕는 배필로 연대해야 한다.

노동을 연대적으로 해석하는 루터에게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노동은

39)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EKD), *Soliarität und Selbstbestimmung in Wandel der Arbeitswelt*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15), 9.

40) 이와 같은 해석으로, Brakelmann, G., *Zur Arbeit geboren?*, 10.

봉사와 직접 연결된다.<sup>41)</sup> 세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한 개개인의 노동은 이웃에게 봉사할 즐거움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루터에 따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인 노동을 통해서 세속적 삶을 영위해야 한다.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임무를 부여했으며 그것이 바로 노동이다. 노동은 업적이나 능력 또는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한 이웃을 위한 봉사 또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다.<sup>42)</sup> 노동은 이웃을 사랑하는 봉사라는 또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즉 노동은 이웃과 연대하고 공동체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봉사인 셈이다.<sup>43)</sup>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한 특별한 임무는 그의 부르심을 통해서 실현된다. 루터에 따르면, 세상의 삶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된 직무(Amt)가 있다. 아울러 그 직무에 맞는 신분(Stand)이 있다. 국가(정치, politia), 교회(종교, ecclesia) 그리고 가정(경제종사자, oeconomia)으로 구분되는 이른바 루터의 3신분제도다. 루터는 이런 신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속왕국과 영적왕국을 치리하는 제도 또는 기구로 이해한다.<sup>44)</sup> 모든 사람은 각자의 신분에 속해 있지만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sup>45)</sup> 오히려 각자의 신분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봉사하면서 그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직무와 그에 따라 하는 일은 상이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루터의 3신분은 서로에게 봉사하면서 유기적으로 연대하는 관계인 것이다.

41) 이와 같은 해석으로, Toedt, H. E., *Das Angebot des Lebens, Theologische Orientierung in den Umstellungskrisen der mordernen Welt* (Güter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78), 126.

42) Luther, M., *WA 10/1*, 310과 *WA49*, 609.

43) 이와 같은 해석으로 Brakelmann, G., *Zur Arbeit geboren?*, 36.

44) 이와 같은 해석으로 Meireis, Torsten, *Tätigkeit und Erfüllung, Protestantische Ethik im Umbruch der Arbeitsgesellschaft*, (Tübingen: Mohr Siebeck, 2008), 78.

45) M. Luther, *WA 26*, 504-505.

가정은 연대의 표본이다. 오히려 연대보다는 더 강력한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선포한다. 또한 구원의 값비싼 은혜에 응답하는 책임으로서 사랑을 실천한다. 구원의 선포와 사랑의 실천은 구별되어야 하지만 갈라질 수 없다.<sup>46)</sup> 사랑의 실천은 교회가 세상을 향한 봉사이며 책임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속시키고 돌보는 위임을 받았다. 교회는 이 위임 속에서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나타나는 정치적, 사회적 조치들에 대해서 그것이 인간부합적인지 감시하는 임무를 가진다.<sup>47)</sup>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인간의 존엄성이 유린당한 곳에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야 하며, “경제적, 사회적 또는 정치적으로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타자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sup>48)</sup> 교회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소외된 타자 앞으로 다가가서 사회적 연대를 위한 행동을 모색해야 한다.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개인의 능력과 국가의 지원이다. 국민들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도록 국가는 정책을 제시하고 실현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34조 3항은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천명한다.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국가는 국민들이 노동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기본소득<sup>49)</sup>을 통해서 국민이 연대할 수 있는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46) Brakelmann, *Zur Arbeit geboren?*, 88.

47) 위의 책, 89.

48) 위의 책.

49) 기독교윤리적 관점에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역설한 글로, 고재길, “기본소득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연구”, 『신학과 사회』, 36(2022), 175-207을 참조하라. 그는 기본소득의 개념부터, 사례, 그리고 한국 신학, 특히 기독교윤리적 시각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선행 연구를 소개하면서 기본소득이 타자를 위한 교회의 책임임을 기독교윤리적으로 밝히고 있다.

오늘날 능력의 한계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해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뿐만 아니라, 교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관심은 그러나 무조건적 시혜적 차원에서 돌봄을 실천하는 온정주의와는 거리가 있다. 가정, 교회, 그리고 국가라는 루터의 삼신분의 시각에서, 독일 개신교 백서, 『Gerechte Teilhabe』<sup>50)</sup>는 교회, 더 나아가서는 국가가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할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한다. 먼저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책임”을 갖도록 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 생각하는 것에서 중요한 목표는 “모든 구성원들이 경제적, 사회적 과정으로 포함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 생각하는 것은 “온정주의적 선택이 아니라, ...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가능한 주변인들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극복하도록 (그들에게) 능력을 주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단순히 물질적 가난으로 보는 시각은 지양되어야 한다. 오히려 그들은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참여가 부족한 모든 사람들이다.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은 물질적 참여의 안전보장을 넘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개선시키는 활발한 사회복지 국가를 포함한다.”<sup>51)</sup> 이 백서는 교회를 넘어 국가적 차원까지 방향성을 제시하기에 가정, 교회, 그리고 국가가 고려할 연대성을 제시하고 있다.

## V. 나가는 말

의무론적 윤리나 목적론적 윤리나 능력보다는 연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신학에서 말하는 칭의와 성서에서 말하는 노동은 연대에 힘을 실어준다. 신학과 성서에서 언급된 노동의 개념은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50) EKD, *Gerechte Teilhabe*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06), 46-47.

51) 모든 인용은 위의 책, 46-47.

봉사하며 연대하는 노동의 개념으로 확장된다. 구약성서의 창조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능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다는 의미다. 이런 의미에서 능력은 윤리적 판단조건이 아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존엄하거나,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받은 존재로 인식될 수 없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담지한 존재 그 자체로서 존엄한 것이다. 신약성서의 달란트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재능은 전적으로 주인이 준 것이다. 잠시 주인이 맡긴 재능은 다시금 주인을 위해서 활용되어야 한다. 칭의론에 의거할 때, 인간의 의로움은 그가 가진 능력에 의해 받은 것이 아니다. 의로움은 죄인인 인간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 받는 것이며,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신학적 입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능력이 공동체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일 때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의 삶에 활력을 줄 때, 윤리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sup>52)</sup> 능력에 따른 사회가 지속되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포장될 때, <오징어 게임>에서 일남이 외쳤던 유명한 대사처럼 “이러다 우리 다 죽을” 수 있다. 오히려 서로가 서로에게 “간부”가 될 때, 같이 살 수 있다. 능력에 대한 후버(Huber Wolfgang)의 말로 글을 마무리 한다. “능력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약자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시키는지 특권층만을 선호하는지를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sup>53)</sup>

52) Winkler, Tilman, “Leistung”, in: Honecker, M.(Hg.), *Evangelisches Soziallexikon*, (Stuttgart: Kohlhammer, 2001) , 951.

53) Huber, Wolfgang, “Leistung”, in: Müller, G.(Hg.), *Theologische Realenzyklopädie 10*, (Berlin, 1990), 733.

## 참고문헌

- 고재길. “공정사회와 기독교 정의론에 대한 연구.” 『선교와 신학』 35(2015), 161-199.
- 고재길. “기본소득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연구.” 『신학과 사회』 36(2022), 175-207.
- 곽호철. “Making John Rawls’ Political and Implications for Religion.” 『신학논단』 74(2013), 311-352.
- 김동일. “공정원리의 이론과 도덕적 기초.” 『정치사상연구』 18-1(2012), 77-102.
- 송용섭. “공감적 정의를 향하여-일베 현상을 통한 롤즈의 정의론의 비판적 성찰과 대안으로서의 공감적 정의.” 『한국기독교신학논총』 99(2016), 91-119.
- 유지황. “토마스 아퀴나스의 정치사상의 분석적 이해.” 『철학사상』 25(2007), 31-66.
- 이군호. “「오징어 게임」과 괴테의 『파우스트』-그 내용적 연관성에 대한 소고.” 『괴테연구』 34(2021), 5-28.
- 이상원. “존 롤즈의 정의론: 공정성으로서의 정의.” 신원하 편. 『기독교 윤리와 사회정의』. 서울: 한들출판사, 2000, 21-67.
- 이혁배. “존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신학적 평가.” 『신학과 실천』 28(2011), 857-877.
- 전희원. “존 롤즈의 사회정의론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평가.” 『한국여성신학』 76(2012), 75-101.
- 정기철. “리콰르의 정의론: 롤스와의 대화.” 『한국개혁신학』 36(2012), 304-335.
- Brakelmann, Günter. *Zur Arbeit geboren?, Beiträge zu einer christlichen Arbeitsethik*. Bochum: SWI, 1988.
-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Gerechte Teilhabe*.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06.
- E KD. *Soliarität und Selbstbestimmung in Wandel der Arbeitswelt*.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15.
- Huber, Wolfgang. “Leistung.” in: Müller, G.(Hg.). *Theologische Realenzyklopädie* 10. Berlin, 1990, 729-734.

- Luther, Martin. *Sermo de duplex iustitia, Weimarer Ausgabe*(이하 *Weimarer Ausgabe*는 WA로 약칭). Weimar, 1872ff, 143-152.
- Luther, Martin. *Von der Freiheit eines Christenmenschen, WA* 7. 20-38.
- Luther, Martin. *Das Evangelium am S. Johannes-Tage, Joh. 21, 19-24, WA* 10/1. 306-324.
- Luther, Martin. *Vom Abendmahl Christi. Bekenntnis Mart. Luther, WA* 26. 261-509.
- Luther, Martin. *Predigt bei der Einweikung der Schlosskirche zu Torgau, WA* 49. 588-796.
- Niebuhr, Reinhold, *Die Kinder des Lichts und die Kinder der Finsternis, Eine Rechtfertigung der Demokratie und eine Kritik ihrer herkömmlichen Verteilung*. München, 1947.
- Rawls, John. *A Theory of Justice*, 황경식 역. 『정의론』. 서울: 이학사, 2003.
- Rich, Arthur. *Wirtschaftsethik Bd. I*.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84.
- Sandel, Michael J..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이창신 역. 『정의란 무엇인가?』. 과주: 김영사, 2010.
- Sandel, Michael J.. *The tyranny of merit*. 함규진 역. 『공정하다는 착각』. 서울: 미래엔, 2020.
- Sen, Amartya. *The Idea of Justice*. London: Penguin Books, 2009.
- Toedt, H. E.. *Das Angebot des Lebens, Theologische Orientierung in den Umstellungskrisen der mordernen Welt*. Güter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78.
- Torsten, Meireis. *Tätigkeit und Erfüllung, Protestantische Ethik im Umbruch der Arbeitsgesellschaft*. Tübingen: Mohr Siebeck, 2008.
- Winkler, Tilman. "Leistung." in: Honecker, M. (Hg.). *Evangelisches Soziallexikon*. Stuttgart: Kohlhammer, 2001, 947-952.

논문투고일: 2022년 07월 07일

심사개시일: 2022년 07월 17일

게재확정일: 2022년 08월 15일

---

• 국 문 초 록 •

---

〈오징어 게임〉이 전 지구적으로 관심을 받았다. 이 열풍의 원인들과 내용에 대한 해석들이 다양하다. 독자적 해석이 요구되는 현대 해석학에서 신학적인, 특히 기독교윤리적 해석도 필요하다. 한국을 넘어 지구가 〈오징어 게임〉을 주목한 이유를 공정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우리 사회에 공정의 규범을 파악하는 작업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오징어 게임〉의 내용이 기술되고, 철학적 측면에서 능력이 공정함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또한 신학적 측면에서 칭의론과 노동의 개념의 정리를 통해서 연대의 규범이 강조될 것이다.

철학적 입장과 신학적 입장은 능력보다는 연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성서에서 말하는 노동은 연대에 힘을 실어준다. 성서와 신학에서 언급되는 노동을 현대적 의미로 해석하자면, 노동은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연대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칭의론에 따르면, 인간의 의로움은 그가 가진 능력에 의해 받은 것이 아니다. 의로움은 죄인인 인간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 받는 것이며,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러기에 인간들은 연대해야 한다. 신학적 입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능력이 공동체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일 때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의 삶에 활력을 줄 때, 윤리적 의미를 가진다.

**주제어:** 〈오징어 게임〉, 능력주의, 연대성, 칭의론, 노동

---